

달라진 한국축구…홍명보호 첫 승 상대는 중국

내일밤 8시 동아시안컵 2차전
베스트 11 호주전 멤버 그대로



그라운드선 남북이 하나 지난 2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 대회(동아시안컵) 여자부 한국과 북한의 경기. 북한의 김희희(15번)가 다리에 주가나 그라운드에 누워 괴로워하는 자리를 만져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는 첫 골과 첫 승리다!'

강력한 압박과 정교한 패스으로 침체한 한국 축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홍명보호(號) 태극전사'들이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안컵) 2차전에서 맞불을 중국을 상대로 '첫 골-첫 승리'를 노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4일 밤 8시 화성 종합경기장에서 중국과 2013 동아시안컵 남자부 2차전을 치른다.

지난 20일 호주와의 대회 1차전에서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 홍 감독은 강한 압박과 바탕으로 빠르고 정교한 패스를 통해 공격의 스피드를 끌어올리며 확연하게 바뀌었음을 보여줬다. 드롭이 없이 0-0으로 비겼던 게 '옥에 터'였지만 소집 훈련 3일 만에 대표팀의 체질을 확 바꿔버린 홍 감독의 지도력에 팬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이제 '홍명보호 태극전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시원한 골 세례를 펴보는 것과, 그것을 바탕



다.

A매치 64경기에서 16골을 넣은 가오린(광저우)을 필두로 취보(귀저우), 정조, 쑨시양(이상 광저우) 등 A매치 60~70경기를 뛴 주축 선수들이 중국 축구의 자존심 회복에 기여하고 나섰다.

홍명보 감독은 호주와의 1차전에 나섰던 베스트 11을 크게 훈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령탑 스스로 민족스러움을 드러낸 포백(4-back)과 중앙 미드필더는 그대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쪽 풀백의 재발견'이라는 칭찬을 받은 김진수(니가타)와 공격과 수비에서 '만점 활약'을 펼친 오른쪽 풀백 김강수(가시와)를 필두로 홍정호(제주)-김영권(광저우) 중앙 수비비라인은 중국의 공세를 막아낼 포백 라인으로 굳어진 형국이다.

'캡틴' 하대성(서울)-이명주(포항)의 더블 불란데 역시 부동의 자리로 여겨지고, 좌우 날개로 윤 윤일록(서울)-고요한(서울)과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승호(전북)도 선발 출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으로 화끈한 승리를 따내는 것이다. 중국을 제물로 삼았다.

그러나 '홍명보호'의 첫 승 상대로 꿈틀이는 중국의 전력은 만만치 않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에 불과하지만 지난 21일 일본과의 이번 대회 1차전에서 1-3으로 끌려가다 3-3 무승부를 끌어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달 15일 태국과의 평가전에서 1-5로 완패한 뒤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 감독을 경질하는 극단의 방법을 취한 중국은 정에 멤버들이 총출동했



20일(현지시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63kg 결승전에서 멕시코의 아벨 멘도사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이대훈(왼쪽 두번째)이 시상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태권도연맹 제공>

한국 세계 태권도대회 2연패

이대훈 최우수 선수…남녀 모두 종합 우승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한 한국 태권도의 간판 이대훈(용인대)이 올해 대회 최우수 선수의 영예까지 안았다.

세계 태권도연맹(WTF)은 22일(한국시간) 멕시코 푸에블라 전시장에서 끝난 2013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 최우수선수(MVP)로 이대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대훈은 전날 남자 63kg급에서 우승, 2011년 경주 대회에 이어 같은 체급에서 대회 2연패를 이뤘다.

이번 대회 여자부에서는 73kg초과

급 금메달리스트인 을가 이바노바(러시아)가 MVP로 뽑혔다. 멕시코 대표팀은 이끈 한국인 방인 감독은 남자부 최우수 지도상을 받았다.

일찌감치 남자부 모두 종합우승을 확정한 한국은 전날까지 금메달 3개, 은메달과 동메달 하나씩을 딴 남자부에서 누적 접수 60점으로 2011년 경주 대회에서 이끈에 내준 종합우승 자리를 되찾았다.

한국은 여자부에서도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로 총 61점을 얻어 정상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전남여고 유정은 전국 중고 펜싱선수권 예비 우승

전남여고 유정은(2년·사진)이 제4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국 남녀 중·고 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여고부 예비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유정은은 22일 김제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예비 개인전 결승에서 김보람(서울 청문여고 2년)을 15-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명기(광주체중 3년)는 남자 중학부 예비 개인전 결승에서 김우일(서울체중 3년)에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임진서(광주 효광중 3년)는 여중부 예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한국 여자축구 아쉬운 역전패 아시안컵 北에 1-2패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아쉽게 역전 패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2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여자부 풀리그 1차전에서 북한에 1-2로 졌다.

한국은 2005년 8월 16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남북통일축구에서 패한 이후 북한과의 성인 대표팀 대결에서 8연 패를 당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A매치 상대전적에서 북한에 1승 1무 10패로 열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20분 김수연(스포츠 토토)이 선제골을 뽑았으나 전반 37분, 38분 허은별(4.25)에게 연속골을 맞고 무너졌다. 이날 경기장에는 관중 6530명이 모였다.

윤덕여 감독은 골잡이 차연희(고양대교), 지소연(아이낙 고베), 좌우 날개 김수연(스포츠토토), 전가을(현대제철)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다. 수비에서는 중앙 수비수 심서연(고양대교)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워 포백 수비비라인을 보호하며 지휘하도록 하는 전법을 구사했다.

한국은 24일 오후 5시 15분 경기 화성 종합경기장에서 중국과 풀리그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개최국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중국을 제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국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 일본, 9위 북한 등 세계적 강호와 비교할 때 악체로 평가되거나 때문이다. 한국은 FIFA 랭킹이 16위로 중국(17위)보다 한 단계이다.

윤 감독은 "가장 큰 변수는 체력이다. 날씨가 매우 덥고 습도가 높아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경기에서 떨어진 선수들의 체력을 빨리 회복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은 전반 20분 김수연(스포츠 토토)이 선제골을 뽑았으나 전반 37분, 38분 허은별(4.25)에게 연속골을 맞고 무너졌다. 이날 경기장에는 관중 6530명이 모였다.

윤덕여 감독은 골잡이 차연희(고양대교), 지소연(아이낙 고베), 좌우 날개 김수연(스포츠토토), 전가을(현대제철)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다. 수비에서는 중앙 수비수 심서연(고양대교)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워 포백 수비비라인을 보호하며 지휘하도록 하는 전법을 구사했다.

한국은 24일 오후 5시 15분 경기 화성 종합경기장에서 중국과 풀리그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개최국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중국을 제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국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 일본, 9위 북한 등 세계적 강호와 비교할 때 악체로 평가되거나 때문이다. 한국은 FIFA 랭킹이 16위로 중국(17위)보다 한 단계이다.

윤 감독은 "가장 큰 변수는 체력이다. 날씨가 매우 덥고 습도가 높아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경기에서 떨어진 선수들의 체력을 빨리 회복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7월 24일(수) *다음카페 광주신수원호 010 3619 3533
7월 25일(목) ▲광주청룡산야회 7월25일(토) 일립산 보부상길을 포수수장(보성), 07:30 업주체육관 주자장 출발, 08:30 무등경기장 후문, 08:30 문예회관 출발, 08:30 동광주IC, 09:00 3645 016 747 745
7월 26일(금) ▲블랙아크40명산트랑 7월25일(목) 광성 동악산, 07:30 업주상무정관녀면, 07:40 교원공제회, 07:50 문예회관 011 259 0284
7월 27일(토) ▲광주청룡산야회 7월27일(토) 일립산 청원호 010 3604 0365, 016 747 745
7월 28일(일) ▲오산우회 7월27일(일) 오전 8시 30분 경기장에서 출발, 08:30 문예회관 010 9602 3925, 010 7750 7210
7월 29일(월) ▲광주청룡산야회 7월29일(월)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7월 30일(화) ▲광주청룡산야회 7월30일(화)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7월 31일(수) ▲광주청룡산야회 7월31일(수)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1일(목) ▲오산우회 7월1일(목) 광성 동악산, 07:30 문예회관 010 3608 4267, 010 3641 6153
8월 2일(금) ▲오산우회 7월2일(금)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3일(토) ▲광주청룡산야회 7월3일(토)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4일(일) ▲광주청룡산야회 7월4일(일)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5일(월) ▲광주청룡산야회 7월5일(월)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6일(화) ▲광주청룡산야회 7월6일(화)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7일(수) ▲광주청룡산야회 7월7일(수)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8일(목) ▲오산우회 7월8일(목) 광성 동악산, 07:30 문예회관 010 3608 4267, 010 3641 6153
8월 9일(금) ▲오산우회 7월9일(금) 광성 동악산, 07:30 문예회관 010 3608 4267, 010 3641 6153
8월 10일(토) ▲광주청룡산야회 7월10일(토)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11일(일) ▲오산우회 7월11일(일) 광성 동악산, 07:30 문예회관 010 3608 4267, 010 3641 6153
8월 12일(월) ▲광주청룡산야회 7월12일(월)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13일(화) ▲광주청룡산야회 7월13일(화) 일립산 청원호 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14일(수) ▲광주청룡산야회 8월14일(수)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15일(목) ▲광주청룡산야회 8월15일(목)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16일(금) ▲광주청룡산야회 8월16일(금)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17일(토) ▲광주청룡산야회 8월17일(토)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18일(일) ▲광주청룡산야회 8월18일(일)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19일(월) ▲광주청룡산야회 8월19일(월)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0일(화) ▲광주청룡산야회 8월20일(화)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1일(수) ▲광주청룡산야회 8월21일(수)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2일(목) ▲광주청룡산야회 8월22일(목)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3일(금) ▲광주청룡산야회 8월23일(금)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4일(토) ▲광주청룡산야회 8월24일(토)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5일(일) ▲광주청룡산야회 8월25일(일)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6일(월) ▲광주청룡산야회 8월26일(월)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7일(화) ▲광주청룡산야회 8월27일(화)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011 3629 0284
8월 28일(수) ▲광주청룡산야회 8월28일(수)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